환일소식

은 행 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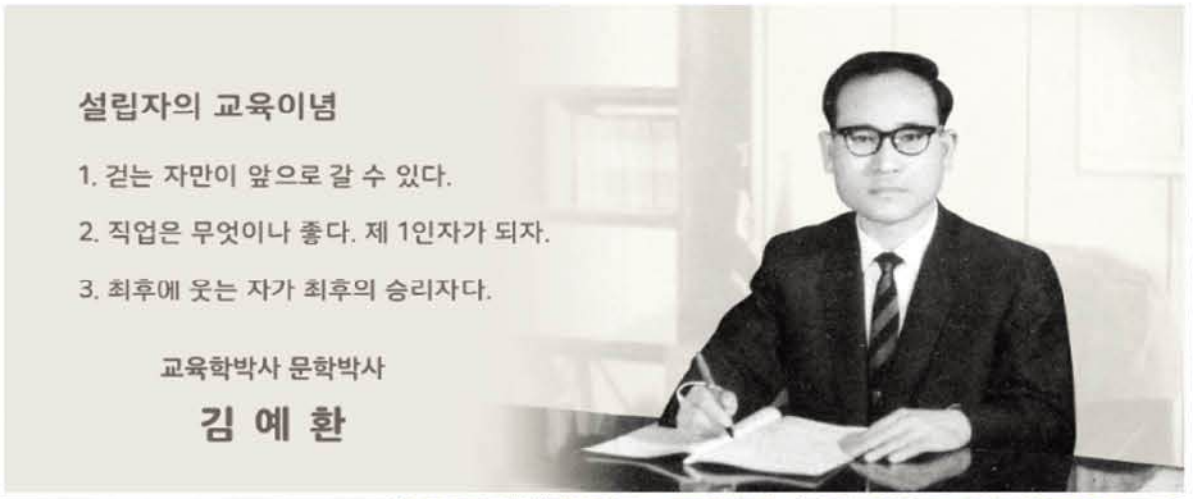
개교기념호

·발행인 : 최원호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www.hwanil.hs.kr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말씀 위에 세운 79년의 전통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다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든든한 요람이자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리더로 자리매김해 온 환일고등학교가 2026년 올해로 뜻깊은 개교 79주년을 맞이했다. 80주년을 단 1년 앞둔 지금, 환일의 교정은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찬란한 유산을 기념하고, 재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그려 나갈 새로운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본교는 1947년 개교 이래 '경천(敬天) · 애국(愛國) · 애인(愛人)'이라는 영원불변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학문적 탁월함과 올바른 신앙적 인성을 갖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온 기독교적 가치와 숭고한 교육 정신은 수만 명에 이르는 졸업생 선배들과 재학생들의 가슴속에 굳건한 자부심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나온 찬란한 역사를 디딤돌 삼아, 다가올 백 년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돛을 올린 환일고등학교. 환일인이라는 드높은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시대의 어둠을 훤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 나아갈 우리 학교의 힘찬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격 려 사

안녕하십니까.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입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운화학원 환일중 · 고등학교가
개교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더 나은 환일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근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환경,
더 행복한 근무환경을 위해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환일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79년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더해
환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하지만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환일을 위해
저부터 더 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함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e Proud to Be a Hwanilian.
Happy 79th Anniversary!
Enjoy the Music and the Fireworks!
Thank You!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79주년 개교기념일 기사 및 이사장님 격려사
2면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3면–8면 학교 행사 및 소식
9면–10면 소감문
11면 자랑스러운 교사, 학생 대상 소감문
12면 자랑스러운 학생대상 소감문 및 주요일정

사진으로 보는 환일의 역사 79년

환일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찬란한 미래를 꿈꾸다.


[1950년대] 졸업사진


[1960년대] 경주 수학여행



[1970년대] 가드온 성경 전달 예배



[1980년대] 성경 퀴즈대회


[1990년대] 학급 단체 사진


[2000년대] 수련회


[2010년대] 수능 응원



[2020년대] 제 17회 전국고교합창대회 대상

빛바랜 흑백 사진부터 찬란한 컬러 화보까지, 사진으로 되짚어보는 환일의 역사.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은 백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역사의 숨결을 전한다. 1947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선 본교가 올해로 영광스러운 개교 79주년을 맞이했다.

'경천 · 애국 · 애인'의 건학 이념 아래 시대의 등불이 되어온 환일고등학교의 웅장한 발자취를, 교정에 켜켜이 쌓인 연도별 역사 사진을 통해 되짚어본다.

사진첩의 첫 페이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진 속 환일인들의 교복과 머리 스타일은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그 눈빛 속에 서린 숭고한 건학 정신만큼은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땀방울로 일구어 놓은 79년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오늘날 재학생들이 써 내려가는 친환경 운동장 위 축구 대회의 함성으로, AI 중점학교의 첨단 코딩 화면으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다가올 영광의 8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지나온 역사를 든든한 디딤돌 삼아 시대의 밝은 빛이 되어 세상을 훤히 밝혀나갈 환일고등학교의 힘찬 항해는 앞으로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3학년 정대상 기자

79년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 환일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

환일고등학교 교장 최원호



우리 환일고등학교의 79년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경천, 애국, 애인의 기독교적 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시련과 변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과 조국 및 이웃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환일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다채로운 가치관이 범람하고, 성적과 진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득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속 깊이 기억하십시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대하고 눈부신 꿈을 가졌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첫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련과 실패에 주저앉거나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타인의 성취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에게 결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디고 느릴지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즉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와 처지에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조금 부족해도, 지금 당장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 앞날이 막막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하고 소중한 달란트를 믿고, 오늘 내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딛으십시오. 경천, 애국, 애인의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이롭게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오늘의 소중한 땀방울은 결코 여러분을 미래의 자산이며, 마침내 이 시대를 밝히는 거목으로 당당히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79년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의 값진 발자국으로 환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개교 79년을 맞이한 환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만든 시간, 내일의 우리를 향한 약속

환일고등학교 교감 김효숙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욥기 8장 7절

79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환일고등학교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모든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79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일고등학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 기도와 헌신이 쌓여왔습니다. 봉학산 마루에서 뜨거운 기도로 학교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설립자의 뜻을 시작으로, 이사장님의 리더십과 교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과 도전이 더해져 오늘의 환일고등학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은 작고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79년의 역사는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경천', '애국', '애인'의 정신과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은 변화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환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환일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과 성실함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환일의 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9년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을 이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그 안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환일고등학교가 더욱 성장하여 학생들의 꿈이 자라고, 사랑과 배움이 넘치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9년의 시간 위에 새로운 꿈을 더하며, 환일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학교행사 및 소식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교직원 · 학생 신앙 부흥회

2026년 7월 13일, 환일고등학교 본교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직원 · 학생 신앙 부흥회가 열렸다. 경천, 애국, 애인의 교훈 아래 개교한 우리 학교의 기독교 이념에 따라 진행된 부흥회는 신앙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철우 목사님의 사회로 찬송가 259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열창한 뒤, 탁우빈 부장님의 기도와 사회자의 유의사항 안내에 따라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박준우 목사님께서 뜻깊은 말씀 메시지를 전했다. 총신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동행교회 담임목사님이신 박준우 목사님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성경에 담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여 참여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다. 참된 신앙과 협동의 의미를 되새긴 2026년 신앙 부흥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다시 한 번 우리 학교의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말씀 아래 하나 된 환일, 골든벨을 향한 지혜의 대결

지난 2026년 7월 6일, 본교 대강당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환일의 오랜 신앙 전통을 잇는 '제47회 성경 퀴즈 골든벨'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범위로 한 '1 · 2학년 학년별 단체전'이 펼쳐졌다.

각 학급을 대표해 출전한 3인 1조의 대표 선수들은 학급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쌓아온 성경지식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짜인 치열한 대진표에 따라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대강당은 숨 막히는 긴장감과 열띤 응원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어 내릴 때마다 관람석의 학우들은 손에 땀을 쥐며 환호와 아쉬움을 쏟아냈다.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짜릿한 승부 끝에 확정된 이번 대회 학년별 최종 수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1학년부에서는 끈끈한 팀워크로 맹활약한 1학년 6반(김준, 박종민, 윤무진)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으며, 2학년부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오답을 비껴간 2학년 3반(김희주, 송주안, 윤혜찬)이 마침내 골든벨을 울리며 영광스러운 1위 왕좌에 올랐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학기 개학식 및 회장, 부회장 임명식

2026년 8월 18일,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2학기 개학식 및 회장, 부회장 임명식을 진행했다. 기나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한 학기 동안의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2학기 개학식으로 문을 열었다. 최원호 교장선생님은 신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남은 한 해 동안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 역시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며 보람찬 2학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임명식에서는 2학기를 이끌어 갈 학생회 간부 및 각 학급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선출된 리더들은 전교생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학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우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다. 임명장을 전달받은 임원들은 커다란 책임감을 품고 환일고등학교의 밝은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1학년 김연우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제주도 푸른 바다로 풍덩, 1학년 소규모테마여행

고등학교 1학년 학우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3박 4일간의 제주도 소규모 테마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여행은 교실을 벗어나 탁 트인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학우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에 도착한 학우들은 가장 먼저 푸른 바다를 향해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파도를 가르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제트보트에 탑승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는 짜릿한 스릴을 만끽했다. 액티비티를 마친 후에는 녹빛이 장관을 이루는 오설록 녹차 밭을 거닐었다. 학우들은 은은한 차 향기를 맡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인생 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카트 체험장에서는 바람을 가르며 트랙을 달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우 간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3박 4일 동안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함께한 이번 제주 소규모 테마여행은 학우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뜻깊은 소풍이자,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초록빛 대자연을 품고, 2학년 소규모테마여행

지난 7월 8일,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2박 3일간의 뜻깊은 '소규모 테마교육여행'을 다녀왔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지도 계획 아래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첫날에는 가평 수상레저 체험장에 도착해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첫 여정을 시작했다. 철저한 수상 안전교육 이수 후 진행된 수상 체험에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완벽히 날려버리는 역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수려한 대자연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는 본격적인 탐방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설악산 흔들바위에 올라 웅장한 자연의 기상을 만끽했으며, 강릉의 명소인 안목해변을 거닐며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의 사진을 남겼다. 마지막 날인 7월 10일에는 속초 쏘라노 리조트 워터피아를 방문하여 온몸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활기찬 시간을 가졌다.

2박 3일 동안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의 정을 나눈 이번 소규모 테마여행은, 2학년 학생들에게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지친 일상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음은 물론 남은 학업 여정을 힘차게 완주할 가장 강력한 청춘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학년 김재현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내일의 리더를 향해 한 걸음, 리더십 캠프

지난 7월 16일, 학생들의 주체적인 리더십 역량을 전격 강화하고 교우 간의 따뜻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교생 대표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첫째 날,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떠난 참가 학생들은 강원도의 수려하고 푸른 자연 속에 마련된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교실 안 딱딱한 책상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열띤 토론과 조율을 펼친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소통 능력을 깊이 있게 되새기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자리를 옮겨 방문한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에서는 시원하고 박진감 넘치는 물놀이와 다이내믹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그동안 쌓였던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냈다. 거대한 파도풀과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을 함께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고 이끌어주는 등 끈끈한 연대의 정과 깊은 동료애를 다졌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교정에 복귀한 환일의 리더들이, 남은 학교생활 속에서도 학급과 학교를 밝게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서울대 캠퍼스에서 미래를 설계하다, 대학전공 심화탐구

지난 9월 8일(화)을 시작으로 9월 10일(목), 9월 11일(금)까지 총 3일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현장에서 자신의 학문적 소질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전형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구청 및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진행한 '중구-서울대 연계 진로 멘토링: 대학전공 심화탐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전공 심화탐구는 강의실을 벗어나 최고 명문 대학의 학문적 공기를 직접 호흡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꾸려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다채로운 계열별로 매칭된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멘토진은 전공별 핵심 학문 트렌드와 고교 시절 반드시 이수해야 할 심화 탐구 주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3일간 서울대학교 전공 강의실과 연구실을 오가는 여정 동안 환일의 인재들은 멘토들과 함께 전공별 논문과 최신 학술 자료를 분석하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연구 계획서를 직접 설계해 보는 등 최고 수준의 학문적 서사를 경험했다.

서울대 캠퍼스에서의 뜨거웠던 지적 교류를 발판 삼아 자신의 꿈의 크기를 한 단계 더 키워낸 환일의 인재들이, 다가오는 대입 무대와 미래 학문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위대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를 온 환일 가족의 마음을 모아 기대해 본다.

2학년 채준휘 기자






초록빛 지구를 위한 한걸음, 수질 분석 프로젝트 실시 영재수업

지난 8월 29일, 서울시립과학관 연계하여 교과서 속 이론을 넘어 실제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고교 지구과학 탐구-수질 측정 및 환경 분석'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탐방형 실험 활동은 서울시립과학관(SEOUL SCIENCE CENTER)과의 긴밀한 교육 연계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해 환경 과학의 실제를 경험하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마련되었다.

실험실에 모인 학생들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핵심 개념들을 정교하게 학습하였다.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전기전도도(EC), 총질소(T-N), 총인(T-P) 등의 과학적 의미와 수질 등급 판정 기준을 익힌 학생들은 조별로 준비된 3~4종의 미지 시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시료를 조심스럽게 채취하고 센서의 반응 수치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원을 방불케 하는 진지한 눈빛과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1학년 김연우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민주주의의 심장을 밟다, 국회견학 프로그램

지난 9월 9일, 국회 조정훈 의원실(마포갑 지역구)의 공식 초청 및 협조 요청에 따라 마련된 '학생 대상 국회 견학 프로그램'에 전격 참가하였다. 이번 견학은 지역구 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정치의 실제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환일의 인재들은 조정훈 의원실 비서관단의 체계적인 안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국회 사랑재 등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핵심 인프라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먼저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률과 국가 정책이 치열한 의사 정리 끝에 탄생하는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했다. 뉴스로만 보던 의원석과 단상을 눈앞에서 마주한 학생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의 엄숙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피부로 다각도 경험했다. 또한, 최고급 전통 한옥 양식의 국회 사랑재에서는 국회를 찾는 국빈 및 외빈들을 맞이하는 외교의 장소를 견학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키우고 동기들과 소중한 기념사진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뜨거운 지적 호기심과 리더의 자질을 함양하고 돌아온 환일의 인재들이, 교정 안팎에서 '경천 · 애국 · 애인'의 건학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초록빛 그라운드 위로 날린 수험 스트레스, 고3 축구 대회

지난 7월 9일, 유해 물질 ZERO의 최신형 친환경 인조 잔디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친 본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낸 '3학년 축구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오랜 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대학 입시 준비로 심신이 지쳐 있던 3학년 수험생들에게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함과 동시에 학창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을 아낌없이 새겨주기 위해 전격 기획되었다.

폭신폭신한 쿠션감과 뛰어난 접지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친환경 잔디 위에서 경기가 펼쳐진 덕분에, 수험생들은 부상 걱정을 내려놓고 그동안 감춰왔던 폭발적인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각 반의 명예를 걸고 그라운드에 나선 선수들은 날카로운 중거리 슛과 몸을 사리지 않는 육탄방어로 경기장의 열기를 단숨에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매 경기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이어졌고, 골망이 흔들릴 때마다 푸른 그라운드 위에는 고3 수험 생활의 압박감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우렁찬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학급에서 준비한 개성 넘치는 슬로건과 도구를 흔들며 친구들의 이름을 연호했고, 경기 중 넘어진 상대 팀 선수를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등 환일의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3학년 이준용 기자






미래 체육 지도자를 꿈꾸다, 서울미래체육인재 한마당 참가

지난 6월 11일, 본교 체육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최한 대규모 체육진로 · 진학 지원 프로그램인 '2026 서울미래체육인재 한마당'에 참가하여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교 참가 학생들은 실제 대학 입학 전형과 동일한 환경 및 정밀 측정 장비가 갖춰진 모의평가장에서 그동안 학교 체육관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갈고닦아온 실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0m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좌전굴 등 체대 입시의 핵심 실기 종목에 임한 환일의 선수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긴장감 속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매 종목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주요 체육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 대학생 멘토단과 만나 실질적인 합격 팁, 실기 준비 노하우, 고교 시절의 효율적인 학업 관리 비법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아울러 스포츠 과학 및 미래 체육 산업 트렌드를 다룬 전문가 특강과 첨단 체력 진단 부스 체험을 통해 미래 체육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 신체적 소양을 넓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3학년 정대상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함께 호흡한 청춘의 한마당, 1 · 2학년 스포츠 축전

지난 9월 3일 목요일,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교내 운동장에서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2026학년도 1 · 2학년 스포츠 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개인의 성취감과 한계를 시험한 '대회 부문'에서는 트랙 위의 꽃인 100m 및 800m 육상 경기가 열띤 환호 속에 펼쳐졌다. 학년별 6개 학급에서 선발된 단거리 대표 선수들이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파이널 결승선에 다다를 때마다 스탠드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응원전이 터져 나왔다. 학급별 4명씩 이어 달린 800m 결승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통을 이어받는 환일인 특유의 끈기와 투지가 그라운드를 가득 채웠다.

학급 공동체의 연대와 단합을 지향한 '한마당 부문'에서는 축구 결승전과 더불어 학급 학생 전원과 담임선생님이 직접 발을 맞춘 '승부차기 토너먼트', '자유투 던지기'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인원수가 적은 학급을 배려하고 담임선생님의 슛 성공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과정에서 교사와 제자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된 학급 공동체의 따뜻한 결속력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번 축전의 백미는 단연 '이벤트 부문'이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놀이 본연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구성된 이 섹션에서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직접 트랙에 나서 100m 달리기 시합을 벌였다. 이어 진행된 학부모 · 교사 연합 릴레이에서는 본교의 이념을 딴 '경천 팀', '애국 팀', '애인 팀' 세 조로 적절히 배분되어 바통을 주고받으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끈끈하게 화합하는 진정한 소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코트 위에서 거둔 값진 결실, 환일 농구반 중부리그 2위 쾌거!

본교 스포츠클럽 농구반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식 무대인 '서울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중부리그에서 내로라하는 강호들을 차례로 연파하며 당당히 최종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8월 20일 준결승전에서 장충고등학교에 35 대 28로 승리하여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결승전에서 리라아트고등학교에 패하여 아쉽게도 준우승을 하게 되었다. 코트 위 5명의 선수가 유기적인 패스 워크와 빠른 공수 전환으로 중원을 장악했고,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결승 무대까지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팽팽한 접전 끝에 아쉽게 석패했으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끈기를 보여주어 관객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학생들이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쪼개어 스스로 손발을 맞추고 땀 흘려온 순수한 '공교육 스포츠 자치'의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코트 위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매 경기 다목적실과 경기장을 찾아 목청 높여 응원을 보내준 환일 학우들의 뜨거운 함성 역시 준우승을 일구어낸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3학년 진재민 기자



수상소식

2026년 제 19회 대통령 경호처장기 대회

–남자 고등부 속사권총–

2위 고3 장세환 / 3위 고2 전지후



수상소식

2026년 아시아 라켓볼 챔피언십 준우승

2학년 우태인



학교행사 및 소식

소통과 협력으로 그리는 환일의 내일, 제74대 학생회 공식 출범

노재원 학생회장 · 안해진 부회장 중심의 74대 회장단 및 부서 조직 최종 확정되었다. 본교 선거관리위원회와 학생 자치 기구의 조율을 거쳐, 2026학년도 본교의 발전과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할 '제74대 학생회 임원 조직'이 최종 확정되며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올렸다.

이번에 출범한 제74대 학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소통 인프라와 전문적인 부서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학생 자치의 최고 수장인 학생회장에는 노재원(2학년 1반 8번) 학생이 선출되어 조타수를 잡았으며, 이를 긴밀하게 보좌할 부회장에는 안해진(2학년 6반 6번)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회장단과 함께 학생회의 든든한 뼈대를 이룰 학년장 체제도 정비되었다.

학교의 중추인 2학년 장은 김재현(20206) 학생이, 풋풋한 활기를 불어넣을 1학년 장은 정예준(10118) 학생이 각각 임명되어 학년별 자치 활동을 이끌게 된다. 이를 서포트할 부학년장에는 김희찬(2학년) 학생과 이선재(1학년) 학생이, 학생회의 모든 기록과 행정을 정밀하게 조율할 서기에는 고은율(2학년) 학생과 나하울(1학년) 학생이 배정되어 집행부의 내실을 다졌다.

이번 제74대 학생회는 출범과 동시에 학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소통 창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급식 환경 개선, 학생 자치 공간 활성화, 코로나 이후 다소 축소되었던 교내 문화 · 체육 행사의 다각도 다채로운 확대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아침 조회와 점심시간을 활용한 밀착형 정책 구상에 전격 돌입했다.

학생 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갈 제74대 학생회가 정정당당하고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환일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진정한 소통의 교두보가 되어주기를 온 환일 가족의 마음을 모아 응원하고 기대한다.

3학년 이준용 기자

제74대 학생회 임원 조직표

회장단



학생회장 노재원



부회장 안해진

학년장



2학년 장 김재현



1학년 장 정예준

부학년장



2학년 김희찬



1학년 이선재

서기



2학년 고은율



1학년 나하울

부장단 (2학년)



기획부장 황정우



총무부장 김주원



선교부장 박시온



생활부장 노재원



자치법정부장 김희주



예체능부장 김승아



동아리지원부장 권준수



봉사부장 길하림



정보부장 김세원



환경부장 채준휘



생활안전부장 박성현



보건부장 이준영



문예창작부장 고하준



특성화부장 이민용



홍보부장 정현준

차장단 (1학년)



기획차장 선서빈



총무차장 장민혁



선교차장 임채준



생활차장 김민수



자치법정차장 정선우



예체능차장 김인우



동아리지원차장 강동윤



봉사차장 김석현



정보차장 이우희



환경차장 조하랑



생활안전차장 조현우



보건차장 박준호



문예창작차장 김연우



특성화차장 송우재



홍보차장 황영진

소감문

개교 79주년 기념 소감문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환일의 내일을 위하여

전 학생회장 3학년 김태양



1947년 건학의 첫 촛불을 밝힌 이래,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온 환일고등학교가 올해로 뜻깊은 개교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80주년을 단 1년 앞둔 이 역사적인 시점에, 환일 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학문적 탁월함과 올바른 신앙적 인성을 갖춘 수많은 선배님들을 배출해 낸 환일의 심장이자, 오늘날 우리 재학생들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는 굳건한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이 찬란한 유산을 디딤돌 삼아, 변화하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개교 79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느끼는 환일인이라는 자부심은 지나온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써 내려갈 찬란한 청사진 속에 더욱 눈부시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배려와 사회성을 갖추어 어두운 세상을 훤히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 됩시다.

역사를 이정표 삼아 영광의 백 년을 향해 힘차게 돛을 올린 환일고등학교의 힘찬 항해에 늘 가장 앞장서서 거친 파도를 맞이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환일고등학교의 개교 79주년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모아 축하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환일의 미래로

전 학생회 부회장 3학년 이준용



1947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온 환일고등학교가 올해로 영광스러운 개교 79주년을 맞이하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천(敬天) · 애국(愛國) · 애인(愛人)'이라는 고귀한 건학 이념 아래 설립된 환일고등학교는,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학문적 탁월함과 올바른 신앙적 인성을 겸비한 수많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당당히 성장해 왔습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온 기독교적 가치와 숭고한 교육 정신은, 수많은 졸업생 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의 가슴 속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가치관의 뿌리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축적된 환일의 웅장한 역사는 이제 선배들이 땀방울로 일구어 놓은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일의 학생들은 창의적인 과학 · 정보 역량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업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과 봉사 등 다방면에서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교 79주년을 맞이한 환일고등학교의 저력은 지나온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그려 나갈 청사진 속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가올 영광의 8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모두 환일인이라는 드높은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시대의 밝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훤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이정표 삼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돛을 올린 환일고등학교의 위대한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74대 학생회장 당선 소감문

2학년 노재원



안녕하십니까, 제74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노재원입니다.

소감을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크나큰 도움을 준 선거인단,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함께 선거를 준비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당선은 제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생회장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의 장점은 리더십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1번 행동하는 것이 학우 여러분께 더 큰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학교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아쉽다고 느꼈던 학교의 문제점들이나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쉬운 점들을 채울 공약들을 내세웠고, 우리 환일고 학우 여러분만큼은 학교를 다니며 이러한 아쉬움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학교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제74대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책임감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저의 모든 노력과 리더십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약속드렸던 공약들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여 말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제74대 학생회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동으로 보답하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회 부회장 당선 소감문

2학년 안해진



안녕하십니까. 제74대 학생회 전교부회장으로 선출된 2학년 안해진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책임감있는 자세로 학생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학생회 임원들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교부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학교에 전달하여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약속드린 공약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더욱 즐겁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개선과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환일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회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4대 학생회의 활동을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고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소감문

푸르른 제주도에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들

1학년 이주원



이번 3박 4일간의 제주도 소규모 테마여행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입학 후 매일 반복되는 학업과 일상에 조금은 지쳐 있었는데, 교실을 벗어나 제주도의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친구들과 함께 제주 바다를 마음껏 만끽했던 때입니다. 요트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기다가, 제트보트를 타고 파도를 가르며 소리를 지를 때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또 카트 체험장에서 바람을 가르며 서로 신나게 달려본 경험도 잊을 수 없는 재미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액티비티 외에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며 여유를 가진 시간 역시 정말 뜻깊었습니다. 푸른 오설록 녹차 밭을 거닐며 친구들과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웃음꽃을 피웠던 순간은 소중한 '인생샷'과 함께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끝난 뒤 숙소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저녁에 모여 앉아 노릇하게 구운 고기와 시원한 냉면을 먹던 시간은 맛있는 즐거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다 보니, 친구들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우정이 한층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3박 4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쌓은 추억들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이번 테마여행을 계기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며 더욱 즐겁고 뜻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고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소감문

지친 일상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준 소중한 시간들

2학년 김재현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학업의 무게가 전년도보다 한층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매일 교실 안에서 쉼 없이 질주하던 우리에게 지난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펼쳐진 강원도 일대로의 소규모 테마교육여행은, 지친 일상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주고 남은 학업 여정을 완주할 강력한 청춘의 에너지를 충전해 준 참으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환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교문을 나섰던 첫날, 가평 수상레저 체험장에서 온몸으로 맞이한 시원한 물줄기는 우리들의 수험 스트레스를 단숨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구명조끼를 단단히 챙겨 입고 친구들과 물 위를 가르며 터뜨린 환호성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교실 안 딱딱한 책상 앞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며 학급 친구들과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마주한 강원도의 수려한 대자연은 우리에게 호연지기와 담대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푸른 숲길을 따라 설악산 흔들바위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바위산의 기상은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야 할 우리 환일인들의 자부심을 닮아있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날 속초 쏘라노 워터피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온몸으로 물놀이를 즐긴 후, 단 한 명의 부상자나 아픈 사람 없이 안전하게 교정으로 귀가하기까지의 2박 3일은 매 순간이 반짝이는 추억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인원이 이동하는 복잡한 여정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동기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을 보며, 환일고등학교의 일원이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리더십 캠프 소감문

긍정의 리더십과 소중한 우정을 배우다

1학년 김연우



이번 1박 2일 리더십 캠프는 학생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고,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진행된 협동 심화 프로그램과 공동체 임무는 저에게 리더십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리더가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조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짜 리더십은 '소통'과 '경청'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혼자 잘해내는 것보다 모두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책임감도 깊이 있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를 말끔히 털어내고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풀과 짜릿한 어트랙션을 함께 즐기며 크게 웃고 즐기는 동안,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끈끈한 동료애가 생겨났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도 서로를 위험하지 않게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과 단합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실을 벗어난 수련 활동을 넘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협동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해 준 이번 리더십 캠프는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배운 긍정적인 리더십과 소중한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에서도 솔선수범하며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국회견학 프로그램 소감문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공공의 가치를 배우다

1학년 장민혁



1학년 학생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견학을 떠났다. 입구 주변에 넓게 드리운 잔디마당에서 집결했는데, 막히는 곳 없이 뚫려 있는 경치와 풀 밟는 소리가 눈과 귀를 즐겁게했다.

보좌관 분들을 뵙고 국회의사당 옆에 위치한 사랑재에 먼저 들렀다. 사랑재는 전통 가옥 형식의 단층 목재 건물인 데, 현대의 세속적인 건물들에 익숙해져 있던 중 간만에 한국의 향이 가득한 건축물과 함께 바람을 맞으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듯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국회로 향했다. 본회의 방청권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갔더니, 뉴스에서만 보던 특유의 노란 불빛과, 의장석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의원석이 우리를 반겼다. 몇몇 의원들은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시작되었고, 국회의장의 진행과 의원의 연설을 들었다. 회의 전의 밝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진지한 분위기로 변하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를 압도당한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회의에 임하는 의원들의 눈에서 국민들의 신의에 보답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지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학생들을 초청해 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만나 국회 소개와 질의응답, 약간의 사담을 나눴다. 국회방송 화면에는 올바른 가치관을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의원님과 활동에 밝게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국가에 중대한 업무를 맡는 분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순간을 더욱이 즐기고 싶었다. 이후 의원님과 사진을 찍으며 아쉽지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체험으로 나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었고, 이 기회를 창출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자랑스러운 교사, 교직원 대상 소감문

김기욱 선생님



존경하는 이사장님, 교장님, 교감님, 그리고 늘 함께 애써 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제게 이토록 과분한 상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결코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학교를 지켜 오신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준 학생들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맡아 오면서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기보다 오히려 환일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왔음을 늘 절감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하루하루는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소박한 걸음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화려함을 좇기보다 성실한 한 걸음을 묵묵히 이어 가는 교사로 남고자 합니다.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친다는 '국궁진췌 사이후이'의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맞아 이렇게 과분하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사장님과 교장 ·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단에서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온 시간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교육의 길을 지켜오신 모든 동료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의 말씀처럼,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교육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귀한 격려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교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선생님



사랑하는 환일중 · 고등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직 김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도 환일고등학교 독보상이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시는 많은 동료 직원분들과 선생님들 앞에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이 상은 그분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하며, 환일의 교육 환경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처음 환일의 교정에 발을 디디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자'고 다짐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철 보일러를 점검할 때나, 한여름 뙤약볕 아래 교정의 풀을 깎을 때면 몸은 고되고 땀방울은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은 교실밖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환일 교정의 구석구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시어 환일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신 이사장님과 중 · 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늘 가족처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모든 환일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부문별 소감문

과학영재 부문

2학년 김재현



안녕하세요, 이번에 과학인재 부문 학생 대상을 받게 된 2학년 2반 김재현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항상 곁에서 좋은 자극이 되어준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이 상에 걸맞은 학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탐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스스로 찾아낸 동기'였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치는 순간을 버티려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나만의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순간이 오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제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작은 이유들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 보았고, 그 이유들이 모여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친구가 던진 엉뚱한 질문 하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개념을 다시 깨닫기도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쉽게 지나쳤을 순간들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거치며 새로운 호기심으로 발전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을 공부하며 배운 가장 큰 것은 끝까지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의 답을 찾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꼬리 물듯 던지는 과정 자체가 과학의 진짜 재미였습니다. 물론 매 순간 달려갈 수만은 없었기에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충분히 쉬고 돌아왔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시각이 열리곤 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스스로 행동하는 이유를 찾고, 친구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은 궁금증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쉬어가며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오래도록 즐겁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 부문

2학년 고하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인재 부문에서 환일 대상을 수상하게 된 고하준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미래인재'라는 이름의 상을 제가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단순히 지금까지의 모습을 인정받은 결과라기보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눈앞에 있는 공부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가 정작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좋은 성적이나 한 가지 분야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며, 제가 관심을 갖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업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책이나 음악, 새로운 경험처럼 저의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까이하며 제가 가진 가능성을 조금씩 넓혀 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금의 결과에 머무르기보다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답을 서둘러 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저를 돌아봤을 때, 이 상이 단순히 한 번의 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하나의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학교생활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 부문

2학년 김희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환일 대상 '미래 인재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김희주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저의 노력과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가능성을 인정해주시고 저의 비전을 더욱 다듬어주신 선생님들의 지도와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제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시며 옆에서 격려해주시는 환일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인재' 라는 상의 명칭이 단순히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며 먼 미래라고만 여겨졌던 꿈을 결국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재'라는 칭호에 걸맞게 환일고등학교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며 저의 장래희망인 외교관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싶습니다. 받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범적인 학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 부문

2학년 박범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환일 대상 미래인재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박범관입니다. 우선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단지 저 혼자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고민들을 들어주시며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지칠 때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앞으로 환일에서의 생활에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꿈을 향해 더욱 더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부문별 소감문

융합인재 부문

2학년 박주한



"극소점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삶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일 것입니다.

AI 대격변의 시대는 우리에게 융합인재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장영실의 창의성과 이청준의 글솜씨를 두루 겸비하라는 이 요구는 종종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런 요구에 못 이겨 버거운 도전에 계속 내던져지곤 했습니다. 결코 지지 않겠다며 호기롭게 현실과 부딪혔지만,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탈락과 좌절을 반복했고, 삶은 제게 쉽게 극소점을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으며 다시 극점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이번엔 이 극점을 극소로 만들 수 있도록 열렬한 창의적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제 꿈을 항상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 늘 함께한 팀 시나브로, 지금의 도전정신을 심어주신 최우식 선생님, 그리고 제게 이 상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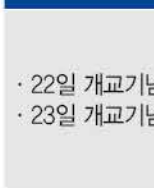
3학년 이준용



이번에 융합인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학교생활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고, 저 또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항상 격려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배운 경험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합인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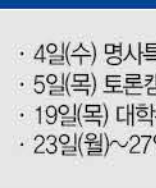
2학년 정현준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융합인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컴퓨터공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분야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회에 출품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검토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며 손발을 맞춰 나간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를 순간들도 팀원들과 함께였기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상까지 이어져 더욱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밤새 고민하고 웃고 부딪히며 성장한 팀원들에게도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학업과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하나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융합적 태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인재 부문

2학년 박시온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창의인재 부문을 수상한 박시온입니다. 제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잘 가르쳐 주신 환일고등학교 선생님들, 기쁨으로 함께했던 예배의 시간,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온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우리 환일고등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하고,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인재 부문

2학년 오준효



안녕하세요. 이번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창의인재 부문을 수상하게 된 오준효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학교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과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선생님 이은주 선생님과 김희경 선생님,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미술과목 김학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 준 학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지원을 해준 학교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발전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인재 부문

3학년 김시준



체육인재 부문 수상자 김시준입니다. 저와 늘 동행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큰 가르침 주신 최진성 선생님, 신현수 감독님, 정희정 코치님, 허동명 담임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일고 사격부 생활을 통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노력하는 사격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가족분들과 천국에 계시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주요 학사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 22일 개교기념예배, 가을밤 열린음악회 · 23일 개교기념일	· 1일(목)~8일 중간고사 · 16일(금) 봉학마루제 · 17일(토) 영재산출물 발표회 · 28일(수) 창의융합학생특강발표회	· 4일(수) 명사특강 · 5일(목) 토론캠프 · 19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 23일(월)~27일(금) 고3 기말고사	· 4일(금)~10일(목) 고1,2 기말고사 · 16일(수)~18일(금) 고3 스키캠프 · 23일(수) 크리스마스 합창제 · 28일(월) 겨울방학식